

影波山 影浪寺大雄殿

朱 南 哲

緒 言

本影浪寺大雄殿은 아직까지 學界에 이렇다할 報告 된바 없는 적은 寺刹로서, 이미 學界에 發表되어 文化財(寶物第一四三號)로 지정된 開心寺大雄寶殿과는 같은 地域內에 있고, 더욱이 많은 共通된 構造樣式을 갖고 있음으로 주목하여야 할 建築이다.

今般,筆者는 一九六八年의 제일차 답사에서 얻은 자료와 一九七七年十月에 행한 제이차 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本影浪寺大雄殿을 考察하고 다시 開心寺大雄寶殿과 比較함으로써 本寺의 重要性을 밝히 고자 한다.

一、位置 및沿革

影浪寺는 忠淸南道 高大面 眞館里, 唐津의 西北方 影波山에 位置한 大雄殿과 승방만으로 된 積은 規模의 寺刹이다.

本寺의 沿革은 百濟 義慈王 八年(AD 六四八) 阿度和尙의 初創으로 이는 지금부터 약 一三〇〇여년전이며 그간 몇차례의 重修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다. 또한 本寺大雄殿 重修記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夫城北龍頭西沙門翼然其名曰影浪環百里地獨寺在三韓世營始其於棟宇之美丹青之麗知是初建者之功換古今閱風……………」

公私普施慈悲之念誌其事銘于左

象山之下彩稿之西氣母鍾靈西聖攸□三韓初建百神宇護內舍衆妙外應群機慈悲六道陳錫百福傳……………」

道光十一年辛卯重修越明年三月十七日

佛寺

化主僧曾隱

聖哲

領座鄭成孫

公言洪岳金

……………」

鐵物大施主韓甲伊萬世壽福之願伍十兩

……………」

이상과 같은 重修記에서 道光十一年은 朝鮮時代 純祖三一年, AD 一八三一年으로 지금부터 약 一三〇여년전이다.

단순히 이 記錄에만 의하면 本寺大雄殿은 朝鮮時代 末期建築으로 보 기 쉬우나, 지방차마의 내림새에서 『康熙一七年 戊午年…………』이라는 記錄을 찾아 볼 수 있고, 康熙一七年은 朝鮮時代 肅宗四年 AD 一六七八年이며, 또 本寺의 建築樣式이 後述하는 바와같이 開心寺大雄寶殿과 共通된 要素들을 갖고 있으므로 보아 위의 重修는 重創이 아닌 단순한 重修임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AD 一八三一年(道光十一年)에는 지붕을 해체하지 않고 重修를 하였거나, 아니면 본래의 기와들을 大部分 사용하면서 基本構造樣式은 바꾸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二、大雄殿의 平面 및 構造

正面三間 側面三間으로 된 맞배기와집이다.

基壇은 막돌 허튼층쌓기로 二重의 壇을 쌓고 이의 正面 中央에 콩크리트로 된 階段을 둔바, 이는 後代의 것으로 보인다.

礎石은 크고 넓적한 막돌로 되어 있고 이 위에 斷面이 圓形인 기둥을 세운바 약간의 엔타시스(Entasis)를 볼수 있다. 柱徑은 대략 下徑 四二cm, 中徑 四四cm 정도로, 平柱高 약 二m 六〇cm 이고 隅柱는 이보다 약 六cm의 귀속음을 둔 二m 六六cm 이다.

正面 三間은 모두 等間隔으로 四각으로 된 머살창호를 달았고 기둥머리를 昌枋으로 물린후 이 위에 平枋을 두어 柱頭를 엮고, 여기에 包作을 놓았다.

包作은 多包로서 正間이나 側間 모두 柱間마다 各二軀씩의 柱間包를 두었고, 出目は 外二出目, 內二出目으로 되어 있다.

柱頭와 小果는 모두 굽받침 없이 斜面으로 굽면을 처리하였고, 小檐遮나 大檐遮의 端部는 모두 翹頭形으로서 끝면은 垂直으로 끊었다.

齊工의 外部로 뻗은 端部는 모두 건실한 仰舌로 되어있고 다만 柱間包에서만 三齊工 上部에 보머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蓮峰形으로 되어 있다.

側面에는 棋包를 配置하지 않고 風板을 달았다.

이 側面은 三間으로, 中央의 兩高柱間이 側面 間살보다 넓으며, 邊柱와 高柱間은 下杞枋과 昌枋으로 아래 위를 물리고 內二出目 아래에 놓인 뜬장혀와 高柱間을 云두가 그리 높지 않은 수평재를 보내어 물리고 있다.

兩高柱의 上部에는 기둥머리에 수평재를 보내어 서로 물리고 다시 側面에서 內二出目도리의 長舌과 수평재로 연결하고 있다.

後面은 三間으로 현재 모두 壁體로 되어 있으나 본래 中央正間에 의 枋戶가 있었던 것(一九六八年)을 그간 보수하면서 문틀만을 두고 벽으로 만든 것이다.

이 後面에도 柱上에는 柱心包作을, 柱間에는 三間 모두 二軀씩의 柱間包를 配置하였고, 棋包의 樣式은 正面 棋包와 약간 다르다.

그림에서 보듯이 柱心包에서는 初齊工과 二齊工 端部는 正面에서와 같은 건실한 仰舌로 되어 있으나 三齊工에서는 翹頭形으로 처리하였고 또 一部 柱心包와 柱間包에서 垂舌로 된것을 混用하고 있다.

後面의 出目도 正面과 마찬가지로 外二出目 內二出目으로 되어 있다 內部의 바닥은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로 되어 있고 아무런 高柱를 中央에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佛壁을 만들기 위하여 별도의 기둥을 세웠다.

前面의 안쪽 棋包들은 初齊工과 二齊工, 三齊工의 端部는 모두 翹頭形으로, 수직으로 끊었고 다만 內二出目도리 아래의 뜬장혀와 접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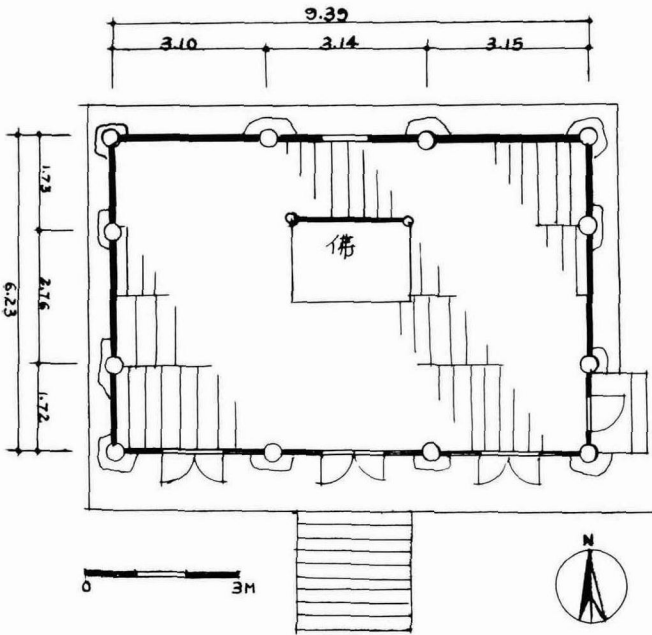


圖 1. 影浪寺 大雄殿平面圖

곳에서만 蓮峰形으로 처리하였다.

內二出目도리 밑은 長舌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Y字形으로 된 花盤과
小累로서 받치고 이를 다시 뜯창허가 받치고 있다.

이러한 樣式은 內部의 前面이나 後面이 모두 같다.

正面 正間의 兩平柱와 後面 正間의 兩平柱 사이에는 아무런 高柱를
세우지 않고 직접 大椽을 보내고 이 大椽 위에 동자기등을 세우고 柱頭



圖 2. 影浪寺 大雄殿 (一九六八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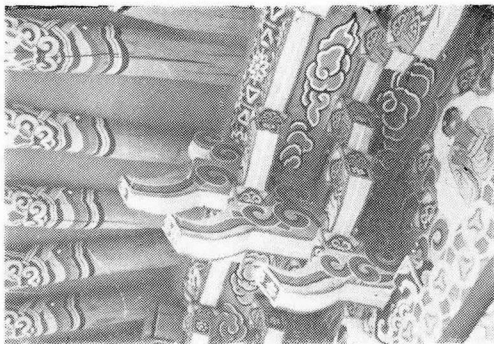


圖 3. 影浪寺 拱包 (一九六八年 촬영)



圖 4. 影浪寺 拱包 (一九七七年 촬영)



圖 5. 影浪寺 內部 (一九七七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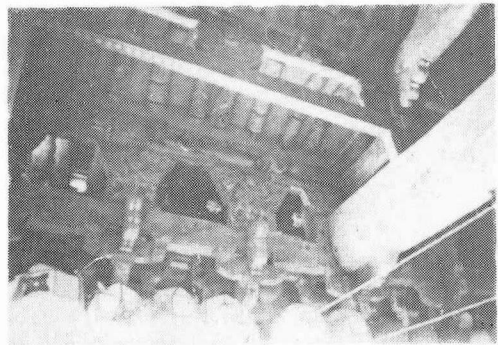


圖 6. 影浪寺 小슬합장 (一九七七年 촬영)

를 엮어 종보(宗樑)를 받는 草工을 물고 있다.

그리고 이들 동자기둥 머리는 內一出目도리와 수평부재로 연결되고 있다.

宗樑 위에는 覆花盤과 小累로서 宗道里的 長舌를 받고 宗樑 양측에서 뻗은 소슬합장으로 宗道里를 떠 받치고 있다.

그러나 內面 兩側壁面上的의 兩高柱間에 걸친 宗樑에서는 소슬합장 없이 角形 臺工만을 엮어 宗道里를 받고 있다.

中道里에서는 長舌를 보내고 이 長舌를 柱上에서는 첨차와 소로로서 柱間에서는 覆花盤과 소로로서 받치고 있다.

天井은 연등천정이며 佛壁에는 닛집을 형성하고 있다.

지붕의 前面은 부연이 있고, 後面은 부연이 없다. 또한 一九六八年 조사시에는 솟막새와 내림새로 처리되었으나 금반의 재조사시(一九七七年 十月 二九日)에는 내림새를 없애고 飜瓦한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본래 사용하였던 『康熙十七年 戊午年』의 기록이 있는 기와들중 몇편이 大雄殿 側面 빈터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三、本寺 大雄殿과 開心寺 大雄寶殿의 比較

本影浪寺 大雄殿의 樣式과 많은 共通點을 갖이고 있는 開心寺 大雄寶殿은 本寺로 부터 西南方 약 二十 km 地點인 忠南 瑞山郡 雲山面 新昌里에 位置하며 이미 寶物 第一四三號로 指定된 朝鮮時代 初期 木造建築이다.

緒言에서 밝힌 바와같이 이 兩寺의 樣式은 많은 共通點을 갖이고 있고 또 같은 地域內에 位置함을 알수 있다.

우선, 두 建築 모두 正面 三間, 側面 三間의 닻배기와 짐으로, 多包係 建築이다. 또 前後面 모두 柱間마다 二軀씩 柱間包를 배치하였고, 前面은 이중처마로 後面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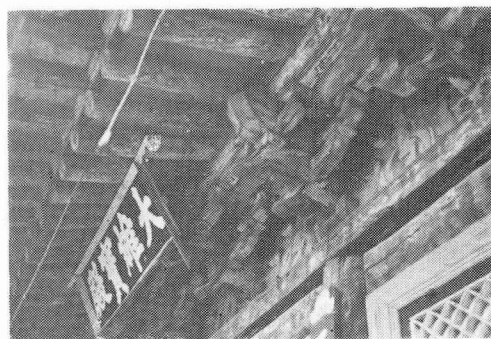


圖 8. 開心寺大雄寶殿包(一九六九年 촬영)



圖 7. 影浪寺內側面박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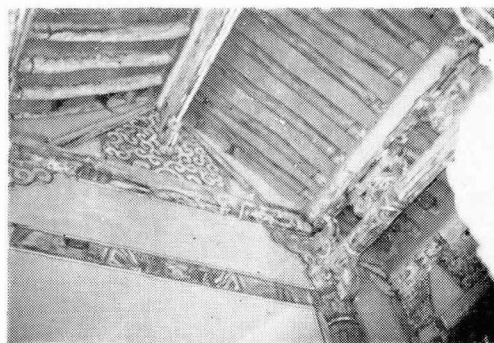


圖 9. 開心寺內側面세부(一九六九年 촬영)

外部의 出目數는 같은 二出目이나 內部에서는 開心寺 大雄寶殿이 三出目으로 되어 있고 影浪寺가 齊工 端部에서 仰舌로 되어 있는데 反하여 開心寺는 垂舌로 된점이 다르다.

그러나 柱頭와 小累들의 굽면이 斜面으로 되고, 또 檐遮端이 翹頭形으로 수직으로 굽긴것도 같다.

또한 內部에 아무런 高柱를 세우지 않고 前後의 平柱間에 大椽을 건 것이나 소슬합장, 覆花盤으로 宗道里를 받는 手法도 같다. 다만 동자기 동만 開心寺는 草工으로 하고 또 兩側面 壁面に 있어서도 覆花盤과 소슬합장으로 한점이 다르다.

또 內出目도리 아래 장혀를 두고 이를 뜬장혀 위에 얹은 花盤으로 받치는 手法도 같으나, 다만 花盤의 형태가 開心寺에서 한층 세련된 것이 다르다.

內部 禪장은 두서가 같이 연등천장이나, 다만 開心寺에서는 佛壁上에 폭이 좁은 우물천장을 일부 만들고 있다. 그리고 基壇과 前面窓戶의 살 짜임이 開心寺쪽이 더 한층 세련된것이 주목된다.

이상으로 두서는 大體的으로 같은 樣式을 하고 있으며 內部的 齊工端部에서만 조금씩 다름을 볼수 있다.

四、結語

以上の 考察로 影浪寺 大雄殿은 開心寺 大雄寶殿과 같은 建築樣式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影浪寺 大雄殿은 맞배지붕으로, 高麗時代 建築인 鳳亭寺 極樂殿, 浮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에서 소슬합장이 사용된점과, 朝鮮時代 初期建築인 無爲寺 極樂殿이 內部에 아무런 高柱 없이 大椽을 직접 兩平柱間에 걸치고 소슬합장과 覆花盤을 使用하여 마루대를 받는것을 생각하면 開心寺 大雄寶殿과 같이 柱心包建築에서 多包係建築으로 변형되는 과도기적 樣式을 보여 주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開心寺 大雄寶殿의 中央마루도리 장혀에서 「成化二十年 甲辰六月二十日瑞山地象山開心寺重創……」이라는 墨書가 해체공사시 발견되었고 여기서 成化二十年이 成宗一五年 AD一四八四年임으로 影浪寺나 開心寺 모두가 朝鮮時代 初期建築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朝鮮時代 初期樣式을 갖인 本影浪寺가 아직도 이렇다 할 文化財 指定을 못받았다고 하는것은 本寺 保存의 重要性에 비추어 매우 애석한 일이며, 하루바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梨花女子大學校 副教授)